2016.9.4. 주일오후예배 메시지 : 현장복음메시지 62과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베드로전서 3:14-22

정윤돈 목사님

우리가 제일 처음 집중전도신학원을 한 후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받았다.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 복음소식 시스템이 확립되고, 구역 시스템도 확립되었다. 또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원니스 되고 하나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라. 나의 절대적인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라.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한다. 우리 노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집중전도신학원을 두고 기도하라.

서론

(1)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의 근원이 한 마디로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통일되는 로고스의 말씀이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인데, 물리적으로도 그렇다. 렘넌트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다. 만물의 근원을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에너지라고 본다. 빛이 있으라고 했지 않나? 그러면 그 빛은 어디에서 형성되었는가? 파동이다. 이 파동이 결국 말이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 자체다. 우주 만물의 기본 단위가 빛이고, 그 구성요소가 소리, 곧 말씀이다. 유는 무에서 왔다. 그러면 그 파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최소단위로 들어가니까, 이 파동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모르겠는 것이다. 만물의 핵 속에서는 날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은 창조라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이해한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섭리가 들어있다.

(2)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 성경의 기록 목적과 주제가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다. KJV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KJV성경만이 하나님이 보존한 성경이라고 강조하고 주장한다. 일단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다. 그럴 거라면 일단 원어로만 봐야 할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다. 잘못된 부분을 강조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개혁하고 바꾸고 갱신해야 한다. 성경적으로 가야 한다. 그들은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강조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겸손히 배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현장의 문제에 답을 줘야 한다. 고민과 문제에 답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 이단들도 전심 하니까 부흥되지 않나. 우리가 전심해야 한다. 관심, 사랑, 헌신, 절대적인 정성이 필요하다. 도박 중독, 알콜중독은 중간이 없다. 0%인가 아니면 100%인가, 둘 중 하나일 뿐이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100% 믿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다. 요1:12,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예수 믿을 때 영혼이,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믿으라. 그러면 생각, 마음이 변화되게 된다. 조금씩 변화되어간다. 마음, 생각이 변화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지 않는가? 그리고 최소한 여기 있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짓지 않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변화가 마침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무엇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가? 내 영혼이 바뀌면 다 바뀐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이때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요삼1:2). 우리는 작은 것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적표, 여러분의 사업에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난다.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찬양과 기도가 있고 집중이 있다. 여기에서 그 힘을 얻어라. 예배에 정말로 성공하라.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찾아야 한다. 발견해야 한다.

1.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1)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 주셨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은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만 구원하시느냐, 불공평하다 하는 말은 결코 말할 수 없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는 불평할 자격, 따질 자격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지 않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자격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무나도 황송한 말이다. 뻔뻔한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셨다. 그 성령께서 기름부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요일2:20-27). 우리 속에 이 기름부음이 있는 것을 믿으라. 이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세포에 스며들고 피 한 방울에까지 스며들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믿지 못하는 도올 같은 사람이 있다. 헬라어 다 알아도 못 믿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시골 할머니도 은혜를 받고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여기에 적혀 있는 지혜와 마음과 성령의 감동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영혼을 터치한다. 깨달음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전12:3).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사역은 그 성령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것이다(행13:1-4). 조금씩 성령인도받는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집이나 고집으로 하면 안 되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말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 잘라내는 것은 율법이다. 이해하고 끝까지 알아보고 포용하고 도와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단까지도 우리는 건져내고 진리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복음만이 개인, 가정,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오직 성령'인 것이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이고, 한국 교회도 살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가자는 것이다. 그러다가 성령인도 받아서 루디아를 만나는 역사,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까지 받게 될 것이다. 정확한 복음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그 안에는 모든 응답이 들어있게 된다.

(2)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나의 구원의 고백, 인격적인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항상 말을 해도 답이 되는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네 시간 동안 그리스도 불렀는데, 그것 두 번 했는데 위장병이 나았다고 하지 않나? 안 나아도 된다. 나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이다.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환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치유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나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만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좀 논리적, 이성적인 분들은 거기에 맞게, 감성적 영성적인 분들은 거기에 맞게 말씀을 받아 보라. 이성적인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질문도 해서 답을 얻어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인생을 걸어라.

(3) 이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오직 예수 해야 할 이유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에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야 한다. 어디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그 방향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3기업의 응답이다. 그 속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다. 말씀 속에서 사업의 아이디어도 나와야 한다. 성도들, 산업인들이 나와서 유대인을 능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 내버리고 복음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전도와 선교로 결론을 내야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수용하고 포용하도록, 내 밥그릇과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나라라는 틀을 깨 버려야 한다. 모든 족속을 제자삼아야 할 것 아닌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결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 결정이 나오는 데에 126년이 걸렸다. 우리의 시간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된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거하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한다. 3오늘을 해야 한다. 이것이 광야길을 가는 걸음이다. 평생 해야 하는 부분이다. 처음 발동을 걸 때는 힘들지만, 제대로 시동을 걸고 나면 삶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응답을 받으라.

2.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1)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2)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날마다, 시마다 계시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그러면 강단을 통해, 다락방과 지교회를 통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나에게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게 된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 응답을 받아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나오면서 확증된다. 그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3. 그러면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1) 나의 구원의 간증이 되는 것이다. 참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증거가 있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나의 고백에서 시작되어서 교회와 시대를 살리도록까지 가게 된다.

(2)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를 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거듭나기 시작한다.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삶, 가정, 교회, 직장이 거룩하게 된다. 건강도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오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복음을 제시하는 것인데, 교만하게 하지 않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실수할 수 있으므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거짓되지 않게 양심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다. 진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을 버리고 양심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양심적인 고백이 진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론

(1) 우리에게 많은 미션이 주어졌는데, 집중훈련을 하면 우리는 8미션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될 것이다. 훈련을 받을 때는 겸손하게 받으라.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응답을 못 받는다. 작은 메시지가 던져졌어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고 현장을 살리게 되기를 바란다.

(2)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중직자, 렘넌트가 일어나야 한다.

(3) 중직자대학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델적인 그림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안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산업선교 모임으로 실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4) 그래서 집중전도신학원에 대해서 일단 결단을 하라. 서류를 먼저 내면 이상하게 돈이 생긴다. 이것부터 응답을 받아 보라. 돈이 없으면 최목사님에게 가라. 나한테는 오지 말고. (웃음) 이남현 목사에게 가도 줄 것이다. (웃음) 나는 안 준다. (웃음) 응답을 받아라.

(5)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제 모든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300지교회, 300다락방, 300전도현장을 준비해서 새롭게 매일 말씀운동을 열어야 한다. 요즘 보니까 신천지들이 세계평화 신천지라고 띠 두르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더라. 여러분, 진리를 잘 배워서 이단들까지 살려내는 응답의 주역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다. 정말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한다.